

○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의 서가]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입력 2026.04.05. 오후 4:23 수정 2026.04.05. 오후 5:38

전광우의 '글로벌뷰'

전광우 지음 / 당신의서재 펴냄

GLOBAL

전광우의 글로벌뷰



VIEW

당신의서재

전광우의 '글로벌뷰'

금융위원회 초대 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IGE) 이 사장이 최근 5년간 언론 등에 기고한 칼럼과 기고문, 인터뷰 중 70여편을 엄선해 여섯개 의 주제로 정리한 책이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주요 현안을 한눈에 보여준다. 경제 전 문가인 저자는 공직에서의 경험, 세계적 석학 및 경제 리더들과의 대화 등에서 축적한 혜안을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공급망 변화와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지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는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격변의 세계질서와 한국의 좌표’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 ‘돈로주의’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저성장의 경고음, 한국 경제는 어디에서 멈췄는가’에선 ‘한국 경제 피크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비상등이 켜진 우리 경제의 현황을 설명한다.

3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 시장이 묻는 정치와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문제는 정치라는 문제의식 아래 정치와 제도의 문제를 다룬다. 4장 ‘개혁 없는 미래는 없다, 연금·노동·재정의 선택’에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마지막 5장 ‘자강의 조건, 기술, 인공지능(AI), 국가경쟁력의 재설계’에선 AI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지금 세계는 급격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협력의 질서는 흔들리고, 지정학은 다시 경제를 압도하며, 정치의 선택은 곧 시장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성장과 안정이 동시에 위협받는 시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성에 의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저자는 한국은 여전히 역동적이지만 정치와 제도의 신뢰는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선 위기를 인식하는 용기와,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 책임을 택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책이다.

강현철 논설실장(hck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20007>
